

O-5.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Development of adjustment policy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of migrant women family in rural

양순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Ph. D. Yang, Soon Mi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주체는 우리사회에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화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결혼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건수는 2004년에 비해 무려 21.8%가 증가하였고, 농촌지역에서도 8.5%가 증가하였다(서울신문, 2006; 한겨레, 2006; 한국경제, 2006).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남녀성비의 불균형, 조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에 따라 초혼 및 재혼 남성들의 국내 결혼입지가 좁아지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양순미, 2006a ; 양순미, 2006b ; 양순미, 2006c).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은 수적 증가에 아울러 동기, 사회인구학적인 배경, 결혼 후에 있어서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해 지고 있다(양순미, 2006f).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출신국가가 어디이나 또는 결혼알선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국제결혼의 동기가 크게 달라진다(양순미, 2006d).

그러나 국제결혼의 동기가 어떠한지간에 국제결혼가족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공통적으로 적응 및 사회통합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일방향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준비없는 결혼홍승, 배우자됨, 부모됨에 대한 세태에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내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양순미, 2006a). 준비없는 결혼, 준비없는 배우자됨, 준비없는 부모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적응이나 이혼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제결혼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양순미, 2006f).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원 요구 등을 분석하면서 우리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의 적응 요인 및 지원 요구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 이민자가 국제결혼한 농촌의 부부들로서, 전국 6개도 6개 시·군 40개면 110개 마을에서 총 150쌍을 표집하였다.

2) 변수 및 척도

종속변인인 적응은 사회적인 기대나 규범에 부응하여 맞추어 행동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조유리(2000)의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이질적인 문화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기대와 불일치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Cronbach's α 는 아내의 경우 .73이며, 남편은 .78이었다.

독립변인에는 부부문제 심각도, 부부의 상호작용 정도, 자아존중감,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등이 이용되었다.

2.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의 적응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투입식 다중회귀분석(multifull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부부간 상호작용 정도($\beta=.28$) 부부의 언어소통 문제($\beta=-.20$), 자아존중감($\beta=.15$)이었다. 남편의 적응에는 부부간 상호작용 정도($\beta=.28$), 부부의 언어소통 문제($\beta=-.26$), 부부의 성격차이 문제($\beta=-.23$), 영농활동 참여여부($\beta=-.15$), 결혼지속기간($\beta=.13$)이 유의하였다(표 1).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소통 뿐만아니라 비언어적 측면의 감정이나 의견을 효율적으로 상호교류하는 기법들을 결혼초기에 지원하는 교육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양순미, 2006e).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교육 및 사회서비스 지원 요구 분석

<표 2>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의 교육요구분석에 의하면, 한(아내국가)국어, 컴퓨터 교육, 자녀교육법, 부부관계 향상 기술 교육, 한국 전통요리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3>의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는 적응지원 서비스,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자녀양육비 및 적응교육 지원 서비스, 취업여건제공 등의 요구가 높았다.

표 1.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아내	남편
	B(β)	B(β)
영농활동 참여여부	-0.52(-0.05)	-2.93(-0.15)*
자아존중감	0.15(0.15)*	-0.04(-0.04)
부부의 성격차이문제	-0.13(-0.03)	-1.17(-0.23)**
부부의 언어문제	-0.93(-0.20)**	-1.36(-0.26)***
부부간 상호작용정도	0.39(0.28)***	0.44(0.28)***
결혼지속기간	0.01(0.09)	0.02(0.13)*
R ² (Adj R ²)	0.47(0.39)	0.61(0.55)
F	5.49***	10.06***

국적(중국=1), 종교유무(없음=1), 영농활동 참여여부(안함=1), 폭력경험여부(없음=1), 결혼생활교육 경험 여부(없음=1), 사회활동 참여여부(안함=1), 자녀 유무(없음=1)

* p <.05 ** p <.01 *** p < .001

표 2.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교육요구 분석

변인	빈도 수 (복수 응답)	
	아내	남편
한(아내국가) 국어	72	29
한국(아내국가)의 문화	40	21
생활예절	15	18
한국(아내국가)전통요리	66	8
자녀교육	72	34
직업교육	16	21
부부관계향상 기술	29	16
여가생활	14	8
컴퓨터	64	39
운전	27	
채테크	5	12
기타	8	13
계	428	219

표 3.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사회서비스 요구분석

변인	빈도 수(복수 응답)	
	아내	남편
국적취득자격, 절차 간소화 등	21	38
자녀양육비 및 적응교육지원	43	29
경제적 지원(주택자금, 결혼준비자금 등)	25	38
적응지원(언어, 문화, 부부관계교육 등)	52	47
취업여건 제공	27	6
건전한 결혼알선업체 육성	-	5
연금, 보험제도 개선	8	7
쉼터, 연계망 지원	6	1
기타	6	6
계	188	177

Ⅲ.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지원 정책 방안

1. 여성결혼이민자부부 적응지원 교육강화 영역

1) 언어교육과 부부 상호작용 향상 기술 교육 영역 확충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이나 부적응의 원인은 국제결혼생활의 어려움 즉 언어, 가족생활,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부부 및 가족간의 상호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중국조선족에 비해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큰 일본 또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에서 적응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양순미, 2006e). 또한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국제결혼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 모두에서 부부의 상호작용 정도와 언어소통문제 정도이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들의 결혼생활 적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지원과 아울러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교류 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표 2>와 <표 3>의 결과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및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국제결혼하는 국가의 여성들의 특성, 문화 및 예절에 관한 사전 정보 없이 대다수가 결혼알선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특정국가 유행바람에 따라 거의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출신국가를 결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대한 현실인식의 차이가 큰 경우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는 점(양순미 등, 2002)을 고려해 볼 때, 정보부재한 상태에서의 국제결혼은 결혼생활의 부적응과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그들의 배우자를 위한 출신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곳의 문화, 예절, 사람들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주고, 아울

러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의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 교육제도의 개정

1) 일회적·전시성 차원이 아닌 지속적·단계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도입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나 가족생활교육은 일회적이고 전시성의 차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각 교육과정별로 초급·중급·고급 등의 단계를 설정해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최소한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 2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 교육수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도입

국제결혼 또는 여성결혼이민자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회자되면서, 각종 단체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혜의 사각지대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은 교육제공 장소까지의 거리 접근성의 한계, 교육에 대한 정보부재, 또는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하거나 밝히지 싶지 않은 가족의 내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며느리의 바깥출입을 통제하고 집안에 가두어 두려는 시어머니의 방책 등으로 이러한 사각지대 현상이 심각하다.

이민자가 의무적으로 한국어나 가족문화생활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게 하는 제도나, 결연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형 도우미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맞춤형 교육방법 도입 : 강의전달식 탈피, 참여형 학습놀이 교육 도입

교육은 강의전달식이 아닌 간단명료하게 의미전달이 가능한 참여형 학습놀이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과정에 컴퓨터 좌판 실습과목을 편성한다면, 한국어와 컴퓨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일종의 참여형 학습놀이식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복지수혜 아닌 자활 또는 인적자원화를 유도하는 정책 도입

본 연구대상의 중국이나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양순미 2006d),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복지제도 보다는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복지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하며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고학력이면서 전문자격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을 취득한 후에 자격평가 인증을 거쳐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전문 인적자원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이나, 둘째, 상대적으로 저학력

이면서 전문자격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을 취득한 후에 직업훈련소 등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셋째,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으로서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영농기술, 영농컨설팅,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귀화 신청서류접수 기관의 확대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서만 국적취득과 관련된 신청서를 접수해 왔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귀화에 한하여 출입국관리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7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대전,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춘천, 제주)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의 국제결혼한 남편들은 다른 사회서비스 보다는 국적취득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비교적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은 일부 대도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거리 접근성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심리적 손실에 의한 불편함을 여전히 토로하고 있었다.

따라서 7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15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8개 지방 출입국관리출장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서울신문(2006). 100쌍중 13쌍 국제결혼. 2006. 3. 31일자.
- 양순미(2006a). 국제결혼가족과 우리의 임무. 여성농업인신문(칼럼), 2006.4. 27일.
- 양순미(2006b). 농촌의 외국인 주부를 위한 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문화복지센터 활성화 교육 교재.
- 양순미(2006c).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의 사회통합. 2006년도 농촌복지정책과정. 농림부 농업연수부.
- 양순미(2006d).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 중국, 일본, 필리핀인 여성이민자 부부 중심.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세계화와 변화하는 농촌사회).
- 양순미(2006e).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농촌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 양순미(2006f).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제 5권.
- 양순미, 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겨레(2006). 결혼 4쌍 중 1쌍은 재혼 커플. 2006. 3. 30일자.

한국경제(2006). 100명중 14명 외국인과 결혼. 2006. 3. 30일자.